

청년층 실업 문제와 교회의 역할

김태황(천안대 경상학부)

I. 문제제기

청년 실업 문제는 노동력 수요-공급의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청년 실업의 증가는 개인의 경제력 상실일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새로운 노동력의 공급을 통한 노동의 사회적 확대 재생산이 원활하게 지속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2005년 9월 현재 청년층 실업률은 7.2%(실업자 수 33만 6,000명) 경제활동인구 전체의 실업률 3.6%의 2배에 달한다. 2003년 기준 한국의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층 실업률 수준 2.7배는 OECD 회원국 평균 1.9배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특히 청년층 실업 대책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반증한다(OECD, 2004).

청년층 실업 대책을 포함한 정부의 일자리 지원 사업에는 2003~2005년 사이 3조 5천억원 규모가 투입되고 있으나 실효성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05). 기업의 생산방식과 고용방식의 변화와 연계된 청년층 실업의 구조적 문제를 고려할 때 고실업률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장기적인 청년층 실업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기업 활동과 고용 및 실업 문제는 국민경제적 관심사이다. 또한 사적 영역에 해당되는 개별 기업과 근로자의 경제(노동)관에 따라 공공 대책의 실효성과 과급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교회의 본질적 활동은 선교와 구제에 집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대상은 현대 사회와 경제 체제의 영향으로 사고와 행동 양식의 패러다임을 부단히 변화시키고 있다. 선교와 구제의 방식과 내용도 이에 부합하여 다양화되고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올바른 노동행위는 기독교인의 삶에 본질적인 요소이다(김태황, 2004). 따라서 건전한 노동력의 재생산 구조를 창출해 나아가는 일에 기여하는 것은 선교와 구제를 지속적으로 담당할 교회의 사역 가운데 일부가 되리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의 목적은 청년층 실업 문제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교회가 기독교적 노동관에 근거하여 국가적 실업 대책 효과를 부분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II. 청년층 노동구조의 특성

청년층 고용과 고실업률 현상을 설명하려는 이론적 준거는 노동시장의 자율 조절 기능을 강조하는 설명과 고용보험제도, 노동조합 등 제도적 운용에 중점을 두는 설명으로 대별된다(전병유 외, 2005). 노동시장의 기능과 제도적 장치가 내부 또는 상호 작용과 반작용을 거치면서 청년층의 고용-실업의 길항적 구도는 조정 양상을 보이게 된다. 세계 전체에서도 청년층의 고용률은 저하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3년 세계 전체의 청년층 인구 전체에 대한 청년층 고용 인구의 비율은 1993년에 비해 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ILO, 2004). 선진국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청년층 고용정책의 영향으로 미미한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10년 사이 산업화 과정에서 청년층 노동시장은 수요 부족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의 고용은 특히 경기 침체에 다른 연령층에 비해 취약한 특성을 나타낸다. 청년층 대상 일자리 창출은 상대적으로 더욱 감소하고 일자리 소멸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청년층 인력의 수급 불균형 현상은 과잉 공급이라는 양적 측면과 교육의 현장 활용성 저하라는 질적 측면에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중장년층 인력이 청년층 인력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현상도 청년층 노동시장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고려된다. 더욱이 세계적인 경쟁력 격화와 국내 경제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기업은 경력직을 선호하는 고용 관행은 정착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년층 인력은 경력관리와 숙련 향상을 위해 시장 진입 시기를 늦추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청년층 인력의 비정규직화가 점증하고 있는 추세도 노동구조의 특징적인 동태적 현상이다(김주섭, 2005; 김안국, 2003; 이병희, 2003; 안주엽·홍서연, 2002).

III. 청년층 고용과 실업의 구조적 문제점

청년층 고용과 실업의 구조적 문제점은 노동시장 진입 과정과 일자리 정착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표출된다(정인수·김기민, 2005; 김주섭, 2005; 김안국, 2003; 이병희, 2003; 안주엽·홍서연, 2002). 먼저, 한국 의 다른 연령층에 비해 실업률이 높은 것은 기대하는 근로조건, 직무, 경력 등에 대한 불만족이나 불일치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활동에 아예 참여하지 않는, 즉 학교 교육을 마친 청년층 신규 인력이 노동시장에 편입되지 않고 유희화 상태에 놓여 있는 수준도 심각한 것은 구직 또는 경력 준비 기간의 필요성이 강조되거나 연장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OECD 통계 분류방식에 의한 청소년/청년층(15~24세)의 실업률은 10.0%로 회원국 평균 13.4%(2004년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나, 고용률은 31.2%로 전체 평균 43.2%보다 현저히 낮으며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05). 이는 노동시장의 진입 과정에서 수급 불일치의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청년층 근로자가 직업인으로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는 일자리 불안정, 비정규적인 고용 형태, 경력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항시적인 잠재실업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청년층 근로자에 대한 불안정적이고 비대칭적인 취업 여건은 경력 개발을 악화시키면서 실업 증대와 취업 의지 약화의 악순환을 유발시키는 구조로 이어진다.

IV. 청년층 실업 대책과 교회의 역할

정부의 청년 실업 종합 대책은 단기 일자리 제공, 해외 취업 지원, 중소기업 유희 일자리 충원, 창업 지원 등 노동시장의 수요 측면에 역점을 두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청년 고용 촉진 대책은 노동시장의 공급 측면에서 진로 및 직업 지도 강화, 대학의 경쟁력 강화, 직업 교육·훈련 체계 혁신 등을 시행하고, 노동시장의 인프라 개선 측면에서는 취약 청년층 개인별 종합 취업 지원 서비스 개선, 청년 취업 지원 기능 강화, 직업 및 고용 정보의 생산과 보급 확대, 청년 실업 대책 성과 보고 등의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외, 2005). 하지만 청년층 실업자와 취약 계층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은 사업별 중복 투자와 취업 연계성의 부족으로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국회예산정책처, 2005). 노동시장의 인프라를 정책적으로 개선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개별 기업과 개인 근로자의 고용 촉진 프로그램 참여도의 향상이 필요하다. 청년 실업 대책의 실효성을 부분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교회의 역할은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직업의식 교육의 활성화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교회 공동체의 ‘몸’은 다양한 분야 전문 인력들의

‘지체들’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다각적인 교육을 위한 풍부한 인적자원 기반을 갖추고 있다. 교육 시스템은 개별 교회의 자원들을 연합하여 범교회적 차원에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학 또는 휴가 기간을 이용한 청년층 대상 수련회를 산업 탐방 및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함으로써 영성과 직업의식 훈련을 연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교회 공동체는 근로 체험 및 경력 형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년층 인력의 취약한 근로 경험과 경력을 실질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다양한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체들을 연계하여 자율적인 근로 연수, 파트타임 근로, 인턴십, 임시 계약직 근로 등을 안정적 일자리 확보 차원이 아니라 경력 형성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교회와 기독교인 기업체 간 敎産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노동력 공급자인 일정 규모의 청년층 인력 그룹과 기독교인 기업체를 일대일로 연계하여 이러한 체험 및 경력 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대일 대응 연계 방식은 산업 부문 선호도와 기업 풀(pool)에 따라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인턴십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소 수준에서 교회의 재정 지원을 검토하거나 무급화를 통해 정착시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독교적 경제관과 직업관에 대한 선행 교육이 뒷받침되어 프로그램의 본질과 목표가 분명하게 공유되고 추구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교회의 부분적인 노력은 개별 교회 차원이 아니라 교회 연합체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효과적이며, 가칭 ‘청년고용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본 센터는 敎産 협력 체계를 지원하여 노동시장의 수급 정보를 매개하고 청년층 대상 직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센터의 운영 재정은 교회 연합체의 부담으로 하되 운영 인력은 청년 자원 봉사자를 활용함으로써 봉사자에 대한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청년층 실업 해소와 고용 촉진을 위해 가능한 교회의 역할은 교회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에 의한 직업활동을 보편화시키고, 심화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를 중심으로 국민경제에 대해 교회 공동체가 봉사해야 하는 역할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